

### “자본·정권 독주에 브레이크 가는 20만 총파업”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2주 차 마무리 ... 전북지부 조합원 만나 총파업 의의 공유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이 순회 2주 차 마지막 일정으로 4월 15일 전북지부를 방문했다.

윤장혁 위원장과 노조 순회단은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지회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노조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가 함께했다.

유준 노조 전북지부장은 “전북지부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대책을 마련하는 지부 집단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전북 진보정치 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4일부터 총파업 현장순회 대장정을 시작하며 지역의 동지들을 만나고 있다. 현장을 보니 공장가동률이 낮은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7월 20만 총파업으로 부품사와 상용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자본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언론과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가



사전에 공세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등 친 기업 기조로 노조탄압을 예고했다” 라면서도 “낮은 지지율이나 여소야대 등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힘찬 투쟁을 독려했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변화시대에 자본은 자회사 설립·무노조 경영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조가 공세로 대응해 재벌 주도 산업전환을 멈추고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20만 총파업이 갑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본과 정권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투쟁이다’ ”라고 강조했다.

현장순회단은 이어 14시 일진머티리얼에서 익산지역금속지회 일진머

티리얼즈분회, 현대필터산업분회, 서연인테크분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현재 정세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회장들이 노조에 질의하고 투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분회장들은 “노조, 지부의 역할을 조금 더 높여 달라”, “복수 노조 대응 투쟁을 더 강력하게 조직해 달라”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린푸드전주지회 사무실에서 완주지역 동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알트론지회(구, ASA지회),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기광지회가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산업전환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노조로 단결해야 현장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을 믿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투쟁 결의를 복돋웠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단’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끝으로 2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 삼성지회, 11년 만에 단체협약 쟁취

삼성 노조파괴 뚫고 조직 확대, 교섭 대표노조 확보 ... “모든 삼성 노동자 노조로 조직할 것”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노조 설립 11년 만에 삼성물산과 첫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열었다.

삼성지회는 첫 단체협약 교섭에서 ▲총회·대의원대회·지부 확대간부 수련회 등 노동조합 활동 유급 인정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 노동조합 이의 제기에 따라 조사 후 인사위원회 회부 ▲노조 파괴 10년 TF 구성·피해자 보상 성격 특별 교섭 등을 합의했다.

이찬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사관계를 풀면 안 된다. 경영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며 “헌법상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찬우 수석은 11년 동안 노조파괴 피해를 본 조합원 관련 조치를 교섭 이전에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조인식에서 “노조가 없던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각오와 용기가 필요했다”라며 “이제 삼성그룹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선택했을 때 방해나 고통 없이 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장희 지회장은 “노조파괴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복직한 지



5년이 됐지만 낫지 않고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오늘 조인식이 삼성 노사관계,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라는 바람을 사측에 전했다.

조인식에 앞서 에버랜드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지회는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지회 투쟁과 노조파괴 범죄 규명을 지원한 동지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을 지우겠다고 약속했다” 라면서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무노조 경영의 잔재가 존재하고, 삼성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만든 어용노조를 존재하도록 놔뒀다”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5월부터 시작하는 2022년 임금·노조파괴 관련 특별 교섭 국면을 활용해 삼성물산 네 개 부문 조직 확대사업을 벌이고,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과 함께 투쟁해 삼

성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는 진정한 삼성 조직화를 이루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2011년 삼성그룹 최초의 민주노조로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 직전 삼성그룹은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삼성지회는 어용노조에 의해 교섭을 원

천 봉쇄당했다.

지회를 세운 네 조합원은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가족·지인 사찰과 감시, 소송 폭탄 등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했다.

삼성지회는 2021년 초부터 삼성물산의 리조트, 건설, 패션, 상사 등 네 사업 부문에서 조합원 가입 활동을 벌이며 조합원을 확대했다. 2021년 4월 6일, 지난 10년 동안 교섭 대표노조였던 어용노조를 제치고 삼성물산의 교섭 대표노조가 됐다.

2021년 6월 금속노조와 삼성물산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삼성물산 네 개 부문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9개월 동안 36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범죄를 이겨내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회는 이번 단협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인 삼성물산에 민주노조 금속노조의 존재를 깊이 새겼다.

# “울산에서 노동정치 다시 출발”

민주노총,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단결 한마당 열어 ... 울산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민주노총이 4월 14일 울산본부에서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과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단결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한마당에 권영길, 천영세, 단병호, 이갑용, 한상균 민주노총 지도위원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장혁 노조 위원장, 박준석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설렌다. 동지들도 그렇지 않은가. 민주노총 지도위원 동지들과 울산 동지들과 진보정당이 함께 이 공간에 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6,500명이 모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암담하다”라며 “오늘 이곳에 와보니 희망을 여기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마당의 의의를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등 다섯 명의 지도위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권영길 지도위원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울산에 있는 동지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희망하는 동지들에게 드려야 하는 말이다. 눈물 날만큼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

권영길 지도는 “오랜 시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 입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제는 안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있었다”라면서 “막막한 시점에 울산이 길을 다시 열어주었다. 진보정당 후보로 앞장서준 동지들 고맙



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천해 승리하리라 믿는다”라고 격려했다.

천영세 지도위원은 “지방선거라는 검은 하늘에 밝은 빛줄기가 내비치고 있다. 정당들과 노동자가 다시 한번 만들어 냈다, 울산의 결심은 부산, 경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진보정당 하나로 함께 가자. 정세는 만만치 않으나 날씨는 눈부신 봄날이다. 노동정치의 봄날을 만들어 보자”라고 호소했다.

단병호 지도위원은 “앞으로 5년을 어찌 살지 걱정이다. 검찰공화국, 노동 배제가 어디까지 될지 야만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노동자들, 진보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단병호 지도는 “윤석열 5년을 새로운 노동정치를 건설하는 역사로 만들자”라며 “단결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성사할 수 있다”라고 당부

했다.

울산 동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큰 결단을 해준 이갑용 지도위원은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다. 우리가 투쟁하고 싸울 때 우리 정치세력화가 승리할 수 있다”라면서 “동구의 김종훈 후보부터 모든 동지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의했다.

한상균 지도위원은 “대선 후보 때 울산을 많이 찾았다. 그때 진보정당 단일화 물꼬를 터 보자고 했다”라며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노동정치를 광장의 정치, 집권의 정치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지도는 “우리는 심상정, 이백운, 김재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를 돌리고 알아서 선택하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 청년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망설일 때 등대가 되지 못했다”라면서 “1987년 세대로서 반성하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곳이 새로운 출발의 장이 됐다”라고 선언했다.